

우리 전주 전주 설화

서해숙 · 이정덕 · 전정구 · 한미옥



전주시립삼천도서관



SC101046



신아출판사

전라문화총서 7

우리 전주, 전주 설화

인쇄일 - 2001년 3월 10일

발행일 - 2001년 3월 15일

지은이 - 서해숙 · 이정덕 · 전정구 · 한미옥

기획·편집 - 전라문화연구소(전화 · (063)270-3273)

발행인 - 서 정 환

발행처 - 신아출판사

출판등록 · 1984년 8월 17호 제 28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전 화 · (063) 275-4000 · 252-5633

팩 스 · (063) 274-3131

인터넷 · 홈페이지 www.shin-a.co.kr

전자우편 shina@shin-a.co.kr

© 2001, 전라문화연구소

값 10,000원

ISBN 89-7171-721-1 03090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우리전주 전주설화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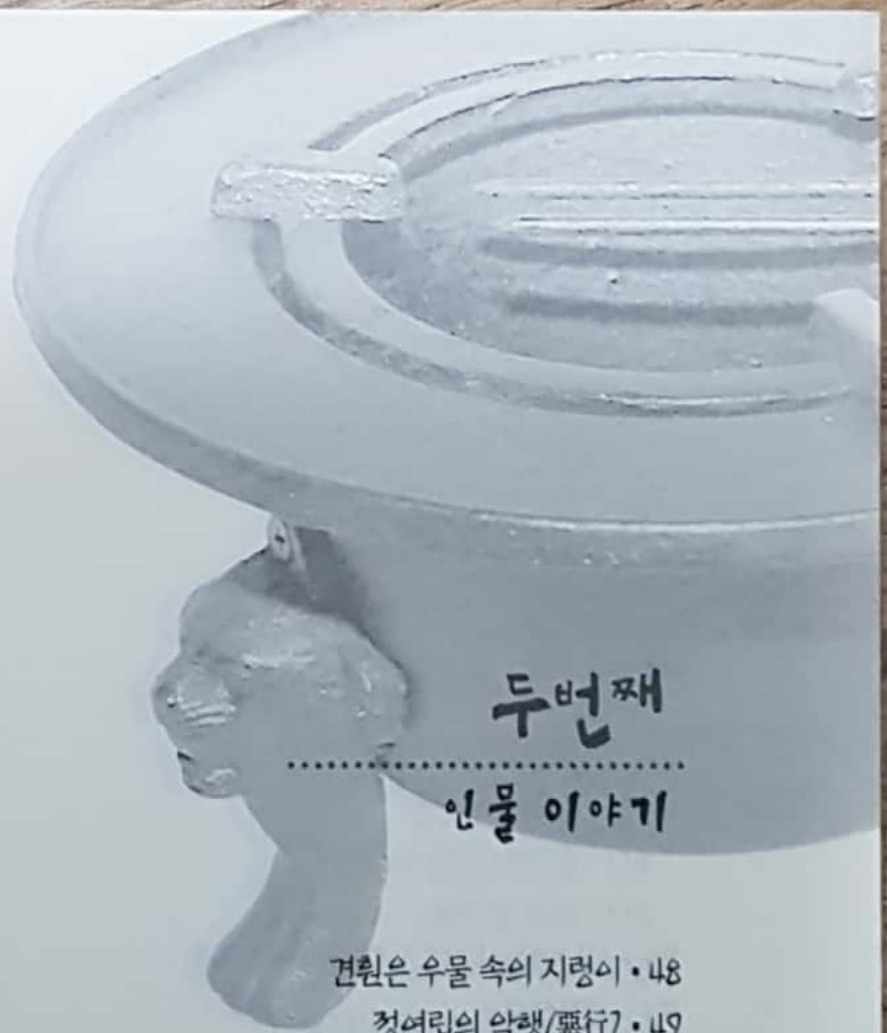
발간사

전주 설화를 문화사업에 활용하자 전 정 구 (전라문화연구소장)

첫 번째

효·열·우애 이야기

- 18 • 효자와 금항아리
- 20 • 효자와 수박동
- 22 • 효자와 감홍시
- 26 • 효자는 아무나 하나?
- 29 • 효자와 불효자
- 31 • 개장을 끓여 제사지낸 아들
- 33 • 효부이야기
- 34 • 진주강씨 열녀비
- 36 • 열녀이야기
- 37 • 두현마을 열녀문
- 39 • 형제와 금덩이
- 41 • 김철승과 이철승의 우철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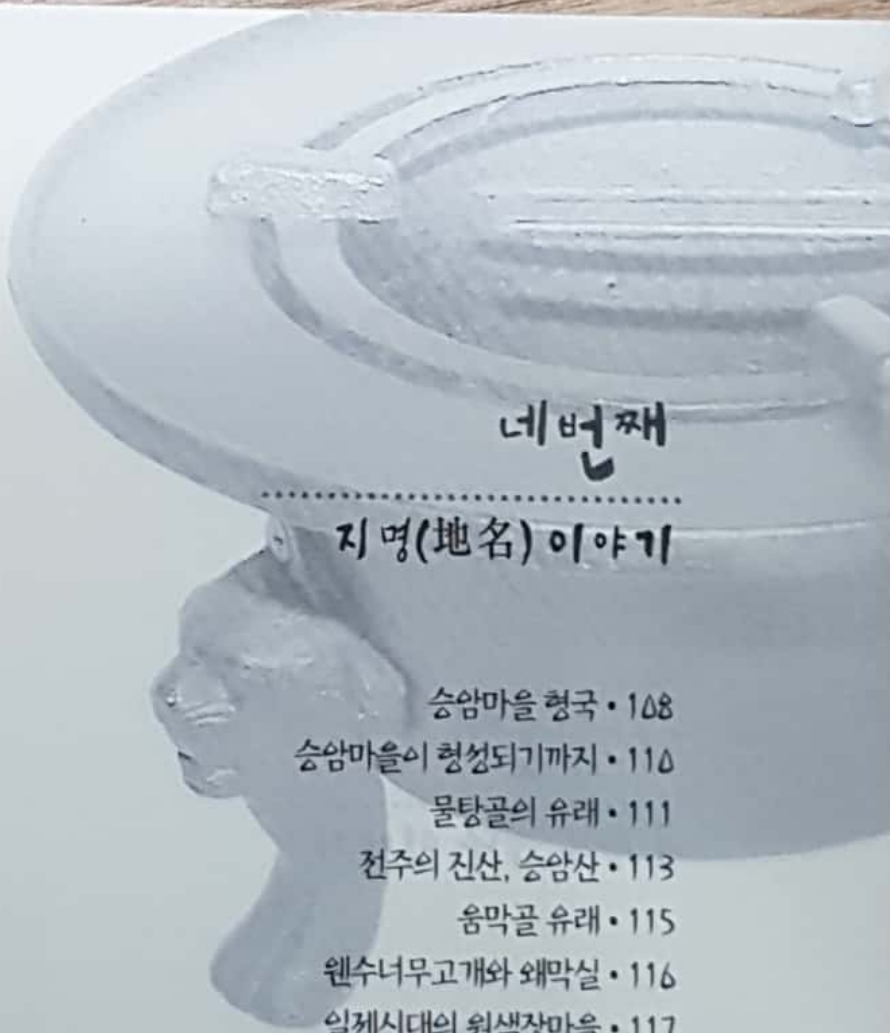
인물 이야기

- 견훤은 우물 속의 지렁이 • 48
- 청여립의 악행(惡行) • 49
- 청여립의 후손 • 55
- 청여립 집안의 묘자리 싸움 • 56
- 청여립과 누나의 림내기 • 59
- 명당과 이청계 유년시절 • 60
- 이청계의 유년시절 • 65
- 이청계와 관련한 지명 • 68
- 이청계와 지리산 • 70
- 이청계의 꿈 태몽 • 71
- 황산대첩의 이청계 • 72
- 이청계와 강씨 • 73
- 강감찬과 모기 • 74
- 강감찬과 번개 • 75
- 이서구의 축지법 • 76
- 금강산 중과 내기한 김삿갓 • 77
- 윤회 이야기 • 79
- 김정수 선조(先祖) 이야기 • 82

세번째

..... 풍습에 관한 이야기

- 90. 아낙네들이 기도드린 승암사 미륵불
- 92. 애장살이
- 93.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1
- 95.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2
- 96. 디딜방아 훔치기
- 98. 초락떨치는 법
- 100. 과부 보쌈
- 101. 초분
- 102. 복 많은 딸 시집보내기
- 103. 구렁이업



네 번째

지명(地名) 이야기

- 승암마을 형국 • 108
- 승암마을이 형성되기까지 • 110
- 물탕골의 유래 • 111
- 전주의 진산, 승암산 • 113
- 움막골 유래 • 115
- 웬수너무고개와 왜막실 • 116
- 일제시대의 원색장마을 • 117
- 색장리의 변천 • 119
- 관암마을 유래 • 120
- 신동에서 신을 신고, 관암에서 갓을 쓰고 • 121
- 마근대미재와 원수내미재 • 122
- 왜막실과 왜망실 • 125
- 찰방마을 유래 • 126
- 오룡에 대하여 • 127
- 한양가는 길목의 신계주막 • 128
- 두간다리 • 129
- 삼레고개 • 130
- 배미실마을 유래 • 131
- 명산(名山) 모악산 • 132
- '주고박고' 하는 원중인마을 • 133
- 두천마을 유래 • 134
- 강낭골과 무젓골 • 137
- 용터와 틀물방죽 • 138

다섯번째

..... 물수와 명당 이야기

- | | |
|------------------------|------------------------|
| 백호와 노루형국 • 144 | |
| 호두(虎頭) 형국 • 145 | |
| 원색장마늘은 배형국 • 146 | |
| 낙시철과 잉어철 • 148 | |
| 말잔등철 • 150 | 166 • 똑똑한 아내와 명당 |
| 일본이 끊어버린 혈맥 • 151 | 170 • 거짓 지관과 명당 |
| 풍수가 끊어버린 혈맥 • 152 | 174 • 용철 묘자리 |
| 맥을 끊어버린 장수날과 대장날 • 154 | 175 • 명산(名山) 모악산 |
| 쥐명당 • 155 | 176 • 김일청 조상묘 |
| 학터에 자리잡은 무학대사 • 156 | 178 • 명당에 자리잡은 김일청 조상묘 |
| 진주소씨와 벌명당 • 159 | 180 • 쥐꼬리날 명당과 괴바우 |
| 흥선대원군의 명당찾기 • 164 | 183 • 쥐꼬리날 명당 |
| | 186 • 사우날 묘자리 |
| | 187 • 최란림과 백로라강형 묘자리 |
| | 191 • 우연히 얻은 명당자리 |
| | 193 • 전주가 못크는 이유 |
| | 194 • 친청 명당자리 차치란 딸 |
| | 195 • 시집간 딸에게 배앗긴 명당자리 |



여섯번째

바위 이야기

병풍바위, 애기바위, 각시바위, 처방바위 • 200

자리바위와 소(沼) • 202

장척바위와 성혈 • 204

수왕사의 쌀바위 • 206

단암사의 쌀바위 • 208

와룡리의 쌍바위 • 209

빈대바위와 용바위 • 211

공구돌바위 •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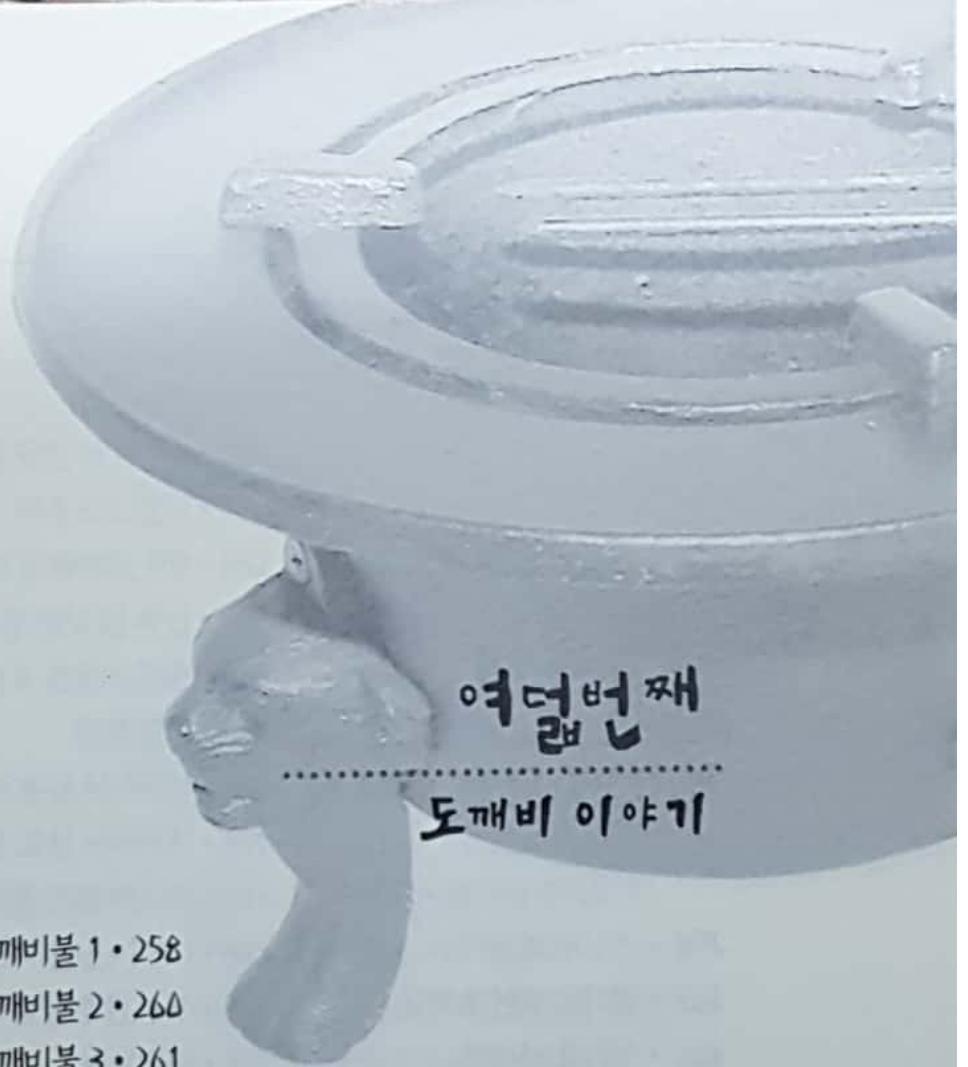
비루바위 • 214

모악산 흰질바위 • 215

일곱번째

동물 이야기

- 220 • 초립동과 은혜갚은 뱀
- 224 • 용 못된 이무기의 복수
- 228 • 용이 못된 이무기
- 229 • 용이 못된 가물치
- 230 • 남매와 호랑이
- 232 • 호랑이 이야기
- 234 • 길을 인도해 준 호랑이
- 236 •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 238 • 인경 많은 호랑이
- 240 • 호식(虎食)으로 타고난 아이
- 241 • 호식(虎食) 당할 팔자
- 242 • 호식 당할 자 따로 있다
- 244 • 여자로 변한 여우
- 247 • 사람을 홀리는 여우
- 249 • 소만도 못한 주인
- 252 • 지네 죽이기
- 253 • 진불대왕과 지네
- 255 •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여덟번째

.....
도깨비 이야기

- 도깨비불 1 • 258
도깨비불 2 • 260
도깨비불 3 • 261
도깨비불 4 • 262
도깨비불 5 • 263
도깨비불 6 • 264
도깨비불 7 • 265
도깨비 실체는 부지깽이나 천빛자루 • 266
도깨비 실체는 피문은 빗자루 1 • 268
도깨비 실체는 피문은 빗자루 2 • 269
도깨비 실체는 피문은 빗자루 3 • 270
도깨비 심술 • 272
멍청한 도깨비 • 273
도깨비제 • 274
275 • 도깨비와 씨름하기
276 • 도깨비 속인 이야기
279 • 도깨비저방
280 • 도깨비에 홀리기 1
281 • 도깨비에 홀리기 2
283 • 도깨비에 홀리기 3
284 • 도깨비에 홀리기 4
286 • 도깨비에 홀리기 5
288 • 도깨비에 홀리기 6
290 • 도깨비에 홀리기 7
291 •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292 •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피
293 • 도깨비 덕에 부자된 이야기 1
294 • 도깨비 덕에 부자된 이야기 2

아홉번째

성(性)에 관한 이야기

- 298 • 스님과 과부
- 303 • 경기도 포천 소까달
- 306 • 셋저방 이야기
- 308 • 박장군과 손장군의 힘겨루기
- 310 •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 312 • 시아버지 불살 만진 며느리
- 313 • 오성(五姓)과 환승
- 314 • 오성의 짓궂은 행동
- 316 • 이불 속의 이퇴계
- 317 • 밤에는 요란한 소우봉
- 318 • 소금장수와 두부장사
- 319 • 자식 키우는 재미
- 321 • 중의 자식은 노란 처고리를 입힌다
- 322 • 색동처고리 유래
- 324 • 앞으로 주지 말라 하여 뒤로 주다

열번째

그 외 이야기

- 날개 달린 아기장수 • 328
내복으로 산다 • 330
평안도 박치기왕과 전라도 코 잘 베어먹는 사람 • 332
고을 원님 된 하인 • 333
바보 온달의 자손 • 336
빈대 절터 • 338
며느리 혼낸 시아버지 • 339
며느리 버릇 고친 시아버지 • 341
시어머니 버릇 고친 며느리 • 343
못된 처자 혼낸 이야기 • 345
정직해서 잘살게 된 부부 • 346
바보신랑 • 349

- 351 • 앵병에 머리가 긴 새신랑
353 •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354 • 전주 사람들 속인 이야기
356 • 색장리 입향조
357 • 묘지에 말뚝박기
358 • 바가, 고라
360 • 거짓말 같은 이야기
362 • 아버지와 아들
363 • 승암사 유래
366 • 승암사의 동자상

부록

- 370 • 마이산
371 • 이야기는 이야기
371 •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
375 • 반반버들잎 초공시와 엽엽이
379 • 완산구 교동 발동기슭에 있는 의견 노랭이비
379 • 옥류동 한벽당과 명필 창암 이삼만에 관한 이야기
379 • 완산구 완산동 옥녀봉의 금송아지 바위
381 •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산의 호랑이 바위
382 • 완산구 동서학동 근처에 있는 미륵불
383 • 덕진구 인후동 도마다리

- 385 • 끝머리 / 현대문명 속의 전주 설화

전정구 · 이정덕 · 서해숙



효자와 수박동

구연일시 : 2000. 6. 18(일)

구연자 : 손관석(남, 67세)

구연장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관암마을 모정에서

줄거리 한겨울에 몸져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해 수박을 찾아 헤매던 효자는 수박동에 이르러서 겨우 수박을 구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으며, 이로 인해 수박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박씨 집안에 효자(*박진 : 조선조 태조 때의 사람)가 났든가, 부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누웠는다. 지금은 동지선달 여름 사시사철 참외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겨울이도 나오고 여름이도 나오고, 근디 아버지가 병이 아파서 누워서 동지선달이 눈은 펑펑오는다. 아들을 부르면서,

“야아! 나 수박이 먹고 싶으다. 수박 좀 가져다 주라.”

옛날 겨울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수박이 어딴어. 지금은 다 개발해서 하우스 저놓고 사계절이 없이 말여. 사시사철 다 나오는다. 그 전이는 어디가 있어. 참외 수박은 7월달이 나 맛봐. 그 전 같으면 이런디다 심어가지고 수박도 허고 참외도 허고, 그전 시청 앞이 역전에 있을 때, 바작이다 젊어지고 거그 와서 가로수 밑에서 바쳐놓고 팔고 그랬어.

근디 그런 옛날 시절에 눈오는 한겨울에 동지선달이 눈이 펑펑 오는다. 수박이 어디 있을거여. 근디 그 아들이,

“예, 가서 구해 오지요.”

하고 나갔다. 아들이 대답은 허고 나갔지만 얼마나 눈은
퍼붓지. 수박을 어디가서 구할거여. 산천을 헤매고 밭도
헤매고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그 수박동이 거그 오니까. 눈
이 호연허니 세였는디 수박이 큼직한 놈이 하나 있드라.
그러서 그놈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수박 가져왔습니다. 수박 잡수세요. 인나세요.(*
일어나세요)”

쪼개서 자기 아버지한테 드리고, 자기 아버지 병 낫고
효자문이 거기 있고, 박씨들 제각도 거그 있고, 그서 그 수
박동여 수박동. 수박이 눈발이 있드래. 금게 효자지. 하느
님이 돌봤는가 산신령이 돌봤는가.



효자와 감홍시

구연일시 : 2000. 3. 15(수)

구연자 : 원성록(남, 79세)

구연장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 1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줄거리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감홍시를 먹고 싶어 하자, 효자는 감홍시를 찾아 해매던 도중에 호랑이의 도움으로 감홍시를 구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전에 효자가 있더랍니다. 어느 마을에 옛날 애기라 부락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저그 참 부모 한 분이 아파 누웠어요. 아파 누웠는디. 평소에도 참 부모를 생각하기를, 지극히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파 누워서 병석에 있는디. 아 그러자 병석에 누워 가지고 인자,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 누웠겠쥬. 낭중에는 결국에 가가지고, 뭐 잡숫고 싶은거 있냐고 그런게로,

“아이구, 내가 감홍시가 먹고 싶다.”

근디 때가 어느 땐고 허니 동절이란 말이여. 겨울이여. 아니, 겨울이 아니라 봄철이구만. 설 무렵이여. 설 무렵 인디. 그때까지 홍시를 간수할 수가 드물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식치고는 아 그 소원을 다해 드려야하는디. 때가 제때가 아니고, 근디 어디서 홍시를 구할꼬 하고, 조반 먹고 나가 가지고는 사방 감나무 새(*사이)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돌아대녀 본 결과, 참 칩기는 하고 날이. 아 어느

때라고 홍시가 어디가 남아 있을 거요. 그 근동을 다 돌아
 댕겨봤는다. 그래 저리 해 가지고 날이 저물어졌어요. 인
 자 점심도 굶고 저물어 졌는다. 아 인자 길도 잘 안보일
 정돈다.

그러자 앞길을 막는 것이 잘 비이도 않는 것이 뭐시 와
 가지고 덜퍽 하면서 앞에 와서 길을 막는다. 잘 자세히 살
 펴보니께, 범이여. 갓은 풍액이쥬. 점심도 안 먹고 시장기
 가 드는디 집이를 가야 짓는다. 구할
 것도 못구허고 그런디. 가뜰이나 범
 한테, 부모의 말하자믄 드릴 것도 못
 드리고. 구허로 나왔다가 급락을 당
 한게로 기가 막힌단 말이요. '나를 잡
 아먹으러 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허고.

아, 그런데 와서 덜퍽 엮딘디. 그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있는 게로 그 말귀를 알아들었
 던가 어쩐가. 안 그 런다고 딱 엮디면
 서 발을 등으로 따독따독 헨단 말이여.

"나를 거기에 엮히려 말이나?"

그런게로 그 인자 그 시늉을 고개
 를 끄덕거린다던지 그랬는 모양이쥬.
 아 그래야 하고, 인자 나 그럼 엮힌다
 고 붙잡은 게로 가만있어. 등에 탄 게
 로, 반달이 저물어 가지고 캄캄한다. 이놈이 달리기 시작
 한디 한 백 여리를 갔어요. 밤에 백여리를.



원성록 (남, 79세)

백여리를 갔는데 그쯤 간계로 날랜 범이라 참 빨리 갔
제, 닭이 울 무렵쯤 되었던 말ियो. 밤에 날은 차고 점심도
끓었제. 그래가지고는 밤중에 참 어느 마을로 범이 인도를
한다. 마을로 들어가요. 옆고는.

마을로 들어 가 가지고는 그 마을서 어느 집 문앞에까
지 딱 놔준단 말이여. 들어가라고. 아 이거 기막힌단 말이
여. 밤중에 념의 집예를 어떻게 들어갈꼬 허고. 부모한테
효도허는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를 좋아 할거요? 밤
중에. 도둑으로 결국 생각하기도 허고 여러 가지 그런디.

“들어가라고 허는 것이냐?”

고 그런게로. 대답허는 것을 피차간 짐작 현거이쥬. 들
어가서 그 집이서 주인을 잡고는 인자 사랑방에 들어 앉
았어. 들어 앉았는디, 그 날 저녁에서야말고, 그 집이서 사
랑방에 앉았쥬. 그 주인은 참 들랑거리고 어찌고 하다가
낭중에는 그냥 사랑에 나오도 앓고 그런디. 어쩐일인고 인
자. 불은 인자 옛날에는 기름불 아니면은 불이 아니여. 근
게 기름불이것쥬. 써놓고 그러고 앉았는디, 열매나 앉었는
데 음식이 나온단 말이여.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이야고
그런게롱. 아 음식이 나온디 상에다 채려 나왔는디, 감홍
시가 나와요. 감홍시를 봤어요. 상위에가 감홍시가 놓야
있어요. 어떤 음식이냐고 이른게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
늘 저녁에 돌아가신 부모님 지양(*제사)을 모신다고. 그러
냐고. 그런디 이제까지 이렇게 감을 억찌게 간수해서 감홍
시가 있냐고 그런게로.

그나저나 음식을 자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허마고
그런디. 평소에 그 사람도 효성이 지극했어요. 참 그래가

지고 젊은 자식치고는 항시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감을 꼬옥 따다가 부모가 좋아 한게로 대접했는갑디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감을 어떻게든지 간수해 가지고 제사상에까지도 올려드렸답니다. 올려드렸는디 오늘 저녁이 지양인디. 항시 감을 한 이백 개씩 간수를 허는디. 다른 때는 여태까지 간수했던거는 한 이십 개 그저 불과 이짜저짜 허는디 금년은 어찌게 되야서 갬이(*감이) 오십 개가 남게 성해 가지고 있다고. 감홍시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지양을 항시 되시고 그런다고. 아, 특별히 올해는 갬이 많이 성은 놈이 있다고. 그 야그를 허드립니다. 그래 인자 자기 얘기를 했어요.

부모께서 어떤 양반이 누워 계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병환에 계신디, 홍시를 요새 구혈라니 구허들 못허고 오늘도 지금 돌아 댕기다가 왔는디. 이러 야차 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게로 그러냐고. 그러면서 대체 댕을 만나 가지고 부모건강에 좋은 일이 될라고 갬이 올해 한 오십 개가 성성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이럴수가 어디 있냐고 허면서, 음식을 좀 먹고는 그런 이후에 한 이십 개를 남게(*넘게) 갖다 주드란만요. 감홍시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놈 갖다가 갖다드리라고. 아 참 이런 감사할 도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고놈을 들고, 참! 밖에를 나왔어요. 물론이 길로 간다고 그러고 나와서. 그러니깐 인자 전송하고 있는데 범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안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감사할 도리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러서 나가서 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인자 그런 야그를 허면서.

“나를 또 데리고 갈라고 그러냐?”

고 그런게로. 얘기는 참 모름지기 의사통(*의사소통)이 말하자면 되야 가지고는 올라탔단 말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그 집예를 간 것이 새벽이 인자 될거아니여요. 백여리 길인디. 새벽이 되야 가지고는 집이를 갔다가 부모님을 갖다 드린게로. 그놈을 자시고 병이 완쾌가 되었드랍니다. 그래 그 범은 산에 말하자면 짐승이 아니라 산신이어 산신. 산신이 일부러 이끌어서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 또 데려다가 집이까지, 말하자면 데려다 주고. 산신 아니믄은 또 백여리 길을 몇 시간 동안이지만은 산길이 가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길이 뭐 있어요. 전부 산길이죠 뭐. 그래, 산신 아니면 그 짓을 못혀요. 산신이 도와서 결국은 효심이 지극혀면은 그런갑데요. 하늘이 감복해서. 지성이 감천이여.



효자는 아무나 하나?

구연일시 : 2000. 3. 15(수)

구연자 : 강귀순(남, 80세)

구연장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 1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줄거리 불효자가 효자노릇을 하고자 이웃집 효자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자기 부모한테 그대로 행동하였으나 도리어 꾸지람만 들었다는 이야기이다.